

# 탈진리 시대 청춘남녀 사랑법 ‘썸타기’

서세종 기자 sejong0362@khu.ac.kr

최성호 문과대학 교수가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시도한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펴냈다.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어장관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짝사랑, 밀당 등의 개념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썸타기와 어장관리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원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찾아낸다. 우리신문은 저자이자 노련한 철학자, 최 교수를 직접 만나봤다.

최 교수와는 오묘하게 시간이 맞

지 않아 스무 통이 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 오고 가는 메일 사이 느껴진 밀당에 ‘이거 썸인가?’하는 생각이 들 즈음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최 교수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며 “그런 중요한 문제에 썸이라는 변화가 생겼고, 이런 변화를 우리 학회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유쾌하게 말했다.

썸은 모종의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썸은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도, 단순한 친구 사이도 아닌 애매하고 불확실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이정규

교수의 논문을 통해 썸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 교수는 썸의 ‘인식적 불확실성’ 즉, 상대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반면 최 교수는 썸은 두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동시에 ‘의지적 불확실성’을 겪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적 불확실성’이란 자신의 자아가 어떤 의지와 욕구로 채워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이의 불확실성이다.

최 교수는 의지적 불확실성의 원인을 탈진리적 시대에서 찾았다. 탈진리 시대는 진리에 대한 필요성이 의심받는, 옳고/그름 혹은 참/거짓에 대한 구분의 중요성이 의심받는 2010년 이후 시대적 배경을 일컫는다. 최 교수는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와 ‘뇌피셜’을 지적하며 탈진리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탈진리적 시대 속에서 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가진다.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개인의 신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개인들 또한 그에 대한 확고한 답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

다. 이에 청년들은 의지적 불확실성을 겪게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 또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 최 교수는 썸이란 “의지적 불확실성을 겪는 우리 시대의 청춘 남녀의 사랑법”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서 “흔히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을 떠올리면서 삶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이죠”라며 “철학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기에 썸타기와 어장관리라는 현상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려 한 최성호 교수의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또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 23학년도 수시경쟁률 22.9:1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16일 18시 마감됐다. 총 2,910명 모집에 66,636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22.9대 1을 기록했다.

입학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 전체 경쟁률은 22.9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 22.92대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2021학년도 18.5대 1이었던 경쟁률이 지난해 상승한 이후, 2년 연속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캠퍼스별로는 서울이 27.2대 1, 국제가 18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형은 논술우수자전형(논술 전형)이었다. 양 캠퍼스 총 487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31,138명의 지원자가 모여 6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인문)의 경쟁률은 339.4대 1에 달했다. 지난해 경쟁률 303.6대 1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어 약학대학 약학과가 205.7대 1, 의과대학 의예과가 19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 전형에 서울캠 내 의약계열 지원자가 대거 몰린 가운데, 국제

## 23학년도 수시모집 전체경쟁률

	총모집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서울캠퍼스	1,544	42,048	27.2 : 1
국제캠퍼스	1,366	24,588	18.0 : 1
총계	2,910	66,636	22.9 : 1

## 양 캠퍼스별 가장 높은 경쟁률 TOP3

	전형 명칭	단과대학 및 학과	경쟁률
서울캠퍼스	논술 우수자 전형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인문)	339.4 : 1
		약학대학 약학과	205.7 : 1
		의과대학 의예과	197.5 : 1
국제캠퍼스	실기 우수자 전형	예술 · 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보컬)	216.6 : 1
		예술 · 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61.3 : 1
	논술 우수자 전형	체육대학 체육학과	57.1 : 1

우리학교 23학년도 수시모집이 전체경쟁률 22: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캠퍼스는 논술 우수자 전형, 국제캠퍼스는 실기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캠에는 체육대학 체육학과가 57.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가 54.5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총 1,100명 모집에 18,29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캠은 583명 모집에 10,745명, 국제캠은 517명 모집에 7,551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16.6대 1로 나타났다. 이중 이과대학 생물학과(51.6대 1),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과학과(32.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처음 입학생을 모집한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전형)을 기준으로 각각 15.9대 1, 16.1대 1, 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공지능학과와 스마트팜과학과는 지난해 경쟁률 14.4대 1, 12.3대 1에 비해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실기우수자전형에는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보컬 부문이 216.7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대학 미술학부(조

소)가 61.3대 1의 경쟁률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했다. 이에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 1,738명에서 올해 1,554명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축됐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면접 대상 인원을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하기도 했다. 변경된 입학전형에 따라 일부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우리학교는 올해 수시모집 역시 높은 경쟁률을 이어갔다.

### ▶ 1면에서 이어짐

정보처 정재윤 처장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했을 당시 이틀 내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으나 업체 측도 처음 발견한 문제였기 때문에 복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제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개선안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처는 ▲차트 상시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정기 체크 시스템 ▲재기동 시 시스템 점검 등 오류 관련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이번 문제에 관해 정 처장은 “(특히 케이스로) 복구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 더 빠른 대응책을 찾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내 와이파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교내 와이파이에는 인포2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포21에 오류 발생 시 와이파이가 연결도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처는 해당 문제가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시 임시로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다만 이번 와이파이 문제는 앞선 인포21 오류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처 정보기획팀 신명철 팀장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가 발생 중”이라며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트가 끝나면 정상화될 예정이다”면서도 “개선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